

시편 미 시편 소개: 시편은 성도의 삶을 바꾸어놓는 책

주일 오후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시편을 소개하려고 한다. 강해라고 하면 매 구절의 의미를 풀고 문맥을 풀고 전체를 살펴보는 것인데 시편은 무려 150편이므로 시간 관계상 이런 식으로 강해를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편을 읽었지만 각각의 시편의 배경과 주제를 알지 못하고 읽으면 큰 유익을 얻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시편당 15-20분 정도를 할애해서 그 시편의 배경, 저자, 핵심 내용, 그리고 중요한 구절들을 나누려고 한다. 그러면 주일 오후 시간에 3개 정도를 하면 1년 정도에 걸쳐서 전체 시편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잡기 이후에 전체를 상세하게 강해할 필요가 있는 시편들은 하나하나 세세히 살펴보려 한다.

이 일을 위해 1.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시편(디모데), 2. 위어스비의 시편 연구 등을 참조하려고 한다.

오늘은 1.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시편(디모데) 첫 부분에 있는 시편 전체 설명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 책은 스티븐 로우슨이라는 침례교 목사의 책, Holman Old Testament Commentary 성도들이 스스로 시편을 공부하기에 좋은 책

그러나 시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시편의 역사적 배경과 단체, 적 도현에 대한 기본적인 경향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서문은 시편 연구에 중요한 서론 기능을 한다.

시편만의 고유한 특징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특이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특징들이 많이 있어 특별한 한 권으로도 사실상 손색이 없다. 아래의 몇 가지 특별한 요소들을 주목해서 보라.

- 시편은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이다.
- 각 시편을 하나의 장으로 인정할 경우 150개의 시로 이루어진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사야서(66장)가 그 뒤를 잇지만 시편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서 176개의 절로 되어 있고 이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짧은 책들보다 더 많은 수이다.
-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며 고작 두 절로 되어 있다.
- 시편 117편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총 1,189장 중 한가운데 위치한 장이다.
- 시편 103편 1,2절은 전체 성경의 총 31,173절 중 가장 중앙에 위치한 절이다.
- 시편은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많은 저자들이 기록했다. 다윗, 아삽, 고라의 아들들, 솔로몬, 모세, 헤만과 예단, 그 밖의 인물 등 많은 저자들이 공동 저작권을 주장하는 문학 모음집이다.
- 시편은 완성되기까지 약 1000년이 소요된 장기 프로젝트였고 모든 정경들 중 기록되는 데 가장 오래 시간이 걸렸다.

- 시편은 이사야서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구약 성경보다 많은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시 2편), 사람의 아들(시 8편)로 계시하며 그의 순종(시 40:6-8), 배신당함(시 41:9), 십자가 처형(시 22편), 부활(시 16편), 승천(시 68:18), 보좌에 앉으심(시 110편)에 대해 계시하고 있다.

시편의 저자

대부분의 다른 성경책들은 한 저자가 기록을 했고 그 중 일부는 여러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는데 잠언이 그러한 예 중 하나이다. 시편은 성경에서 여러 저자들이 기록한 몇 안 되는 책 중 하나로서 많은 저자들이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기록한 합작품이다. 그러므로 시편의 여러 저자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며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삼하23:1)인 다윗은 시편의 주된 저자이다. 그는 150편의 시편 중 75편 즉 시편의 정확히 절반을 기록한 인물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3-9, 11-32, 34-41, 51-65, 68-70, 86, 101, 103, 108-110, 122, 124, 131, 138-145편, 또한 사도행전 4장 25절은 시편 2편을 다윗이 기록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4장 7절은 시편 95편도 다윗이 기록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 인도자로 섬긴 제사장인 아삽은 열두 편의 시편을 기록했다(50, 73-83편).
- 가수와 음악 작곡가들의 조합이었던 고라의 아들들은 열 편의 시편을 쓴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42, 44, 49, 84, 85, 87편).
-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두 편의 시편을 썼다(72, 127편).
- 이스라엘의 대언자이며 출애굽을 주도한 강력한 지도자 모세는 한 편의 시편을 기록했다(90편).
- 현자이며 음악가, 에스라 사람, 고라의 자손이며 고라 찬양대의 창설자(대하 5:12, 35:15)인 헤만은 한 편의 시편을 썼다(88편).
- 현자이며 에스라 사람이자 레위 가수로 추정되는(대상 6:42, 15:17, 19) 에단은 한 편의 시편을 썼다(89편).
- 나머지 마흔여덟 편의 시는 작자 미상이다.

시편의 기본 유형은 아래와 같다.

- 지혜시: 이러한 교훈적인 시들은 경건한 삶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확실한 방향을 제시한다(1, 37, 119편).
- 메시아시: 그리스도의 메시아 통치가 도래함을 묘사하는 제왕시들은 그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확실한 주권적 왕으로 묘사한다(2, 18, 20, 21, 45, 47, 68, 72, 89, 101, 110, 118, 132, 144편).
- 탄식시: 감정이 아주 고조되어 있는 탄식시들은 저자가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바라며 부르짖는 마음을 담고 있다(3-7, 12-13, 22, 25-28, 35, 38-40, 42-44, 51,

54-57, 59-61, 63-64, 69-71, 74, 79-80, 83, 85-86, 88, 90, 102, 109,120, 123, 130, 140-143편).

- 저주시: 하나님의 영광에 맹렬하게 열심을 내며 도전적이고 때로는 논쟁적이기까지 한 이 시들은 하나님의 원수이자 저자의 적인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간구한다. 저자는 주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박해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한다(7, 35, 40, 55, 58-59, 69,79, 109, 137, 139, 144편).
- 감사시: 개인적이든, 민족적이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풍성한 축복에 대한 심오한 자각과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시들이다(8, 18, 19, 29, 30, 32-34, 36, 40, 41, 66,103-106, 111, 113, 117, 124, 129, 135-136, 138-139, 146-148, 150편).
- 순례시: 이 절기 시편들은 이스라엘이 연중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상할 때 그분을 찬양하도록 축제분위기를 내고 있다(43, 46, 48, 76, 84, 87, 120-134편).
- 즉위(통치)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장엄한 시들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통치의 장엄함과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유지하고 통제하며 인도하는 섭리적 돌보심을 묘사하고 있다(48, 93, 96-99편).

시편 1편: 인생의 두 길과 두 운명

주일 오후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시편 산책, 1편부터 하루에 3편정도(15-20분)를 선정하여 전체적인 줄거리, 배경, 신경 쓸 구절 등을 같이 나누려 한다.

오늘 시편 1편, 인생의 두 길과 두 운명

들어가는 글

높은 길과 낮은 길

영국의 저명한 작가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동서가 어디 있나'라는 유명한 고전을 쓴 찬송가 작사가 존 옥센함(John Oxenham)은 '길' 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다.

모든 사람에게 이 길과 저 길과 또 여러 길이 열려 있네
높은 영혼은 높은 길을 오르고 낮은 영혼은 낮은 길을 더듬네
그 사이의 안개가 자욱한 들판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이리저리 방황하네
그러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네 모두가 각자 결단해야 하리
자기의 영혼이 갈 길을, 하나의 높은 길과 하나의 낮은 길 중에서

이 시는 모든 인간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이, 저마다의 인생 앞에 일련의 선택들이 놓여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렇듯 선택 가능한 많은 길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오직 두 가지 길, '높은 길과 낮은 길' 만이 존재한다. 모든 인간의 삶과 모든 인간의 운명은 '영혼이 가야 할 길'과 관련해 각자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한 개인이 선택하는 길은 현재뿐 아니라 이어지는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인생 경로를 결정한다.

시편 1편은 이러한 인생의 두 길을 구분한다. 한 길은 복으로, 다른 한 길은 저주로 이어진다. 한 길은 구원의 길이고 나머지 한 길은 파멸의 길이다. 인생에는 오직 두 가지 길 즉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길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길이 있고 그 길은 두 개의 정반대되는 운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이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지침을 제공하는 지혜 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편은 명확한 표시가 된 의의 길 입구처럼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면서 모든 여행자들이 하나님의 복의 길로 가도록 지시를 해 준다. 의도적으로 서두에 놓인 이 시편은 나머지 149편의 서론 역할을 한다.

기억하라: 성경은 두 사람, 두 길, 두 운명에 대한 책이다.

본문 이해

A.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길(1:1-3)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죄에 물든 철학과 관습에 따라 살거나 타락한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풍성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1. 복이 있도다. 도치 표현, 이 표현은 “오, 참으로 얼마나 행복한가”, “그 행복!” 이라고 읽어야 한다. 마태복음 5장의 8복,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2. 말씀 중심으로 사는 길, 묵상한다. 스마트폰, 성경,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갈망하게 마련이므로 말씀에 대한 이 갈망은 그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 새로운 욕구로 인해 그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

3. 그는 자체가 복이고 복의 통로이다.
- B.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길(1:4-6)
 4. 겨와 같다. 침례자 요한 마3:7-12
 5. 심판 때에 저주, 계헨나 지옥, 둘째 사망, 불 호수
 6. 망한다.

삶의 적용: 이 시편은 '복이 있다'로 시작해서 '망한다'로 끝난다. 두 길, 두 인생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모든 인간은 “나는 인생의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라는 엄중한 질문을 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가? 아니면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은 저마다 스스로에게 묻고, 진지하고 정확하게 대답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다. 자신이 의인의 길을 걷고 있다고 대답했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과연 진실한지 보여줄 또 다른 일련의 질문들이 제기된다. 이를테면,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만한 변화된 삶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길의 믿음과 행위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과의 교제를 끊었는가? 주 하나님의 율법(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당신이 현재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회심이 진실임을 확인하기 위해 신비한 느낌이나 감정적인 체험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변화된 삶의 열매를 추구해야 한다. 한 개인이 지닌 신앙의 진정성과 유효성은 그가 맺는 영적 열매를 통해 드러난다. 열매는 구원에 대한 테스트이다. 이 열매에는 개인의 성결(롬 6:22),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갈 5:22-23), 선한 행위(골 1:10), 사역(롬 1:13), 청지기직(롬 15:25-28), 하나님을 찬양함(히 13:15) 등이 포함된다.

다른 성경들, 악인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죄인들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

시편 근편: 그리스도의 무너뜨릴 수 없는 천년왕국

시편 1편 하나님의 말씀, 2편은 예언에 초점

1편은 신약에서 불인용, 2편은 여러 곳에서 인용됨(마3:17; 7:23; 17:5; 막1:11; 9:7; 눅3:22; 9:35; 요1:49; 행4:25-26; 13:33; 빌2:12; 히1:2,5; 5:5; 계2:26-27; 11:18; 12:5; 19:15).

2편은 메시아 시편(8, 16, 22, 23, 40, 41, 45, 68, 69, 102, 110, 118)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 하나님이 왕, 왕정 시대에도 마찬가지, 사울 다윗 등

여기의 왕은 다윗 같은 인간적인 왕이 아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마1:1, 다윗의 자손

이 시편은 12절, 4개의 목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1. 이교도들의 목소리(1-3), 음모
2. 아버지의 목소리(4-6), 조롱, 이집트 피라미드
3. 아들의 목소리(7-9), 승리
4. 성령님의 목소리(10-12), 기회

들어가는 글

그렇다면 별들도 끌어내리시오!

프랑스 혁명으로 몹시 혼란스러운 시기에 한 정치 혁명가가 국민들의 눈에서 법과 질서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 그는 사다리를 타고 노트르담 성당에 올라가 뽀족탑 꼭대기에서 십자가를 뜯어내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산산조각 난 채 땅바닥에 방치되었다. 그 혁명가는 한 가난한 농부를 향해 얼굴을 돌리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끌어내릴 것이오.” 그러나 군중들 속에서 누군가가 도전적인 대답을 했다. “이보시오, 그렇다면 별들도 끌어내리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최악 된 인간의 교만한 시도 역시 마찬가지다. 사탄 마귀의 우주적 반역(겔28, 사14)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에 대항했던 에덴동산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그 후로 하나님께 반역하고자하는 인류의 음모는 가속되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변절이 아무리 단호하고 기략이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우주적인 반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시기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보잘것 없는 시도로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무너뜨릴 수 없다.

시편 2편은 타락한 세상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게 반역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두 번째 시편에는 아무 제목이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다윗을 저자로 인정하고 있다(행4:25), 신약에 따르면 이 시편은 약속된 메시아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실 시간을 미리 내다보고 있다(행 4:25-26, 13:33, 히 1:5, 5:5, 계 2:26-27, 12:5, 19:15),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반역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에 대적하는 반역이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시도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모든 불신자들은 때가 늦기 전에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

시편 2편의 주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왕국

왕국은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문자 그대로 메시아 왕국을 천년 동안 세우실 것이다. 철장 권세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나 천주교, 프로테스탄트들의 무천년 신학,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마태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오역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을 나라, 국으로 번역하여 의미 완전히 상실됨

왕,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예수님 초림 땅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왕국 설립, 유대인 반대, 재림을 연기됨

1948년 5월 이스라엘 부활 재건, 세상 역사는 왕국의 설립 쪽으로 간다.

교회 시대 마감, 7년 환난기(후반부 대환난기), 그리고 천년왕국(에스겔 성전 등, 계20장),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계21-22)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2)

시온 산: 예루살렘

7절을 잘 이해해야 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실제로 낳지 않는다. 엄마가 낳듯이, 아버지가 더 크고 아들이 작고 성령이 작고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beget이라는 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특별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다.

독생자 Only begotten Son, 유일한 아들

사도행전 13:33에서 바울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해함

삶의 적용

아들에게 입 맞추라

모든 불신자들은 이 시편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권면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헌신하는 단계에는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죄악 된 반역에 동참했음을 인정하는 일이 포함된다.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와 거룩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그 죄들의 비참함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상함과 경건한 슬픔으로 자신의 죄악을 깊이 통회해야 한다. 고개를 뺨뺨하게 들고 과시하듯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벧전 5:5).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기 겸손은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거나 숭배와 복종의 행위로서 “아들에게 입 맞추는” (시2:12) 일로 연결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모든 만물의 왕이신 그분께 복종해야 한다.

복음 아버지께 회개하고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 뒤 성령님 안에서 화평을 얻는다.

시편 3편: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와 승리의 확신

시편에서 처음 시(psalm)라는 말이 나온다. 시편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

1-41편은 1, 10, 33을 제외하고는 다윗의 시편

개인적인 애통함을 표현하는 시(시3-7; 13; 17; 22; 25:1-28:9; 35; 38:1-40:17; 42:1-43:5; 51; 54:1-57:11; 59; 61; 63:1-64:10; 69:1-71:24; 86; 88; 102; 109; 120; 130; 140:1-143:12)

압살롬의 반역(삼하15장)

다윗의 실수(밧세바 사건 삼하12, 다말 사건 삼하13)

셀라가 처음 나온다(3:2, 4, 8). 셀라 총 75회, 시편 72, 하박국 3장 3회, 휴지, 혹은 크게, 재림

들어가는 글

모든 개인적 시편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도록 가르친다. 사람들이 악한 의도로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신다. 이것은 확실히 시편 3편의 저자인 다윗이 경험한 일이었다. 이 시편은 개인의 탄식을 담은 찬송으로서 역경의 불길 속에서 시험을 당할 때 승리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세 번째 시편의 표제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삼하15-18장) 지은 것임을 밝히고 있다.

부친에 맞서 정치 쿠데타를 주도한 압살롬은 많은 이스라엘인들의 마음을 얻었고 다윗은 궁에서 나와 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시련 속에서 수많은 적들에게 에워싸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실 것을 믿으며 절대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구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역경의 시기에도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명백히 전해주고 있다. 그분은 항상 자신의 영광과 백성들의 선을 위해 일하신다. 그러므로 시편 3편은 애통과 확신의 시편이다.

Main Idea: 시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했다.

구조

A. 다윗의 환란(3:1-2)

1. 많은 적들이 나를 대적한다(1절)
2. 많은 적들이 나를 조롱한다(2절)

B. 다윗의 확신(3:3-4)

1.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3a)
2. 하나님은 나의 영광(주권자)시다(3b)
3.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3c), 나의 머리를 드는 분
4.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4절), 말을 들어주시는 분, 거룩한 산(시온), 주의 궤가 있는 곳 자기는 왕좌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산에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머리를 들어올린다.

C. 다윗의 평강(3:5-6)

1.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5절), 이 고통 속에서도 잠을 잔다.
2.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6절)

D. 다윗의 간구(3:7-8)

1. 주여 일어나소서(7a)
2.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7b, c, d)

3.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8절). 구원은 주께 속한다. 요나 고래 배속에서 이 말씀(욘2:9), 고래 배속에서 구원받는다. 결국 그는 압살롬을 이기고 승리, 그의 잘아은 주님

결론

역경 속에서 신자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을 확신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과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롬8:28).

인생의 폭풍이 사납게 몰아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평강을 전하시며 사나운 비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의 방패와 힘이 되심을 알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나 신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쉽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 육신의 팔은 결코 우리를 환난에서 구해줄 수 없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고통 속에서도 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신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 역경의 화염 속에서 시험받고 강해질 때 승리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시편 4편: 믿음이 있는 성도의 내적 확신과 기쁨

들어가는 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물을 통치하심을 알고 그분의 주권을 확신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주권은 그분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뜻함(미세 컨트롤 숙명론이 아니라).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택하셨으며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편 4편의 중심 메시지이다.

특히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곳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득하다. 사악한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낙심 중에서도 기운을 내야 한다.

종종 '저녁의 시편' 이라고 부르는 이 다윗의 시는 고통으로 가득한 지나간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뢰의 기도였다. 많은 해석가들은 시편 3편과 4편이 한때 하나로 연결된 것이었다고 믿는다. 세 번째 시편은 이른 아침에 드리는 기도이고(3:5), 네 번째 시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다(4:8).

이러한 관계가 사실이라면 시편 4편의 배경은 3편과 동일하다(즉 다윗에 대한 압살롬의 반역 - 비교, 삼하 15-18장). 표제에는 악장에게 주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적 예배 때 예배 인도자에게 주어졌음을 뜻한다. 악장(chief musician)이라는 말은 53개 시편의 제목에 나온다. 영장이 아니다.

이 시편은 노래로 불렸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역할을 하는 하프와 수금의 현악기' 반주가 따라야 했다.

이 시편은 절망적인 고통의 때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우주와 만물, 모든 인간사를 통치하시기에 시편 기자는 안전하게 안식할 수 있다.

핵심: 박해 속에서 다윗은 원수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 자기의 지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한다.

총 8절

A. 다윗의 요청(4:1)

1. 하나님여, 내 말을 들으소서(1a). 어떤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밋세바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롭다 하시는 분
2. 하나님여, 나를 곤경에서 빼내 주소서(1b). enlarge, 압살롬의 반역 같은 악한 보고를 들으면 마음이 좋아진다. 나를 넓혀 주셨다. 공간감의 확장

B. 다윗의 견책(4:2-3), 책망과 나무람

1. 사람들이 나를 수치스럽게 한다(2절). 그들은 헛된 것을 사랑한다. 이들은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마귀의 자식들
2.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3절). 아주 중요한 말씀,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왕, 압살롬은 아니다.

C. 다윗의 반박(4:4-5), 자기를 따른 자들에게 주는 말

1. 경외심을 품고(4a, b, c), 죄를 짓지 말라. 마음을 살펴보라
2. 입을 닫으라(4d)
3. 네 삶을 희생물로 드리라(5a)
4. 주를 신뢰하고 네 뜻을 복종시키라(5b)

D. 다윗의 구원(4:6-8), 다윗의 사람들의 보고

1. 내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6절), 어둠을 빛으로
2. 기쁨으로 채워주소서(7절), 결혼식이나 추수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다
3.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8절)

결론

어떤 신자도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환난 속에서 건져주실 수 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들의 내면에 불안을 키워간다. 깊은 근심 중에 있을 때 신자들은 고통의 때에 바로 현존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시46:1-2),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의 완전한 뜻에 따라 응답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기도는 결코 공허한 수다가 아니다. 그것은 환난의 때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살아있고 역동적인 관계를 가질 때 흘러나온다(시50:15).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필요한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되는 때는 바로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 가중되는 압박감에 에워싸이는 순간이다. 주님은 모든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고요한 확신으로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초자연적인 화평을 부어주실 것이다(빌 4:7).

시편 5편: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

들어가는 글

5편도 3편처럼 아침의 시편이다(3).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 당시, 혹은 반역이 일어나기 바로 전, 10절 7절의 주의 집, 주의 거룩한 전은 성막을 말한다.

10절로 인해 저주 시(imprecatory psalm, imprecation), 12; 35; 37; 58; 59; 69; 79; 83; 109; 139, and 140. 이런 시편의 하나님, 악을 보고 참지 못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기를 간절히 간구한다.

그의 저주의 대상은 누구인가? 주를 대적하는 자들(5:10),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다. 특히 이스라엘과의 관계;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창12:3),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신학적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틀리지는 않다.

이런 저주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렘11:18, 15:15; 17:18, 18:19; 20:11)

침례자 요한의 선포(마3), 예수님의 선포(마23), 계6:9-11도 보라.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하지만 어떤 때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균형감 있게 성경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 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악한 죄악에 대해 관심(경각심)을 갖지도 않을 정도로 죄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권에 삶의 초점을 맞춘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된 사람이다.

시편 5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과 관련해 우리에게 본을 보여 준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한 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숭고하고 초월적인 관점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엿볼 수 있다. 또 그것으로 인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 알게 된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개인의 탄식시(저주 시)인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뚜렷한 특징을 밝히고 있다. 많은 원수들에게 에워싸였을 때 다윗이 쓴 이 시편의 표제는 느힐롯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이 특별한 시편을 회중 예배 때 피리 반주에 맞추어 불렀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내어맡긴 삶이 무엇인지 오늘날 성도들에게 귀한 본을 보여 준다.

본문 핵심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견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총 12절

A. 다윗의 통회(5:1-3)

1. 내 탄식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소서(1절), 기도하려면 묵상해야 한다. 영과 혼의 묵상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2. 내 부르짖음을 들으소서(2절), 나의 왕, 이것이 기도이다.

3.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3절), 향하게 하다 direct, 순서대로 제물을 올리듯이 한다. 히브리서대로 우리는 자유롭게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히4:16).

B. 다윗의 확신(5:4-6)

1.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거부하신다(4절)
2.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부하신다(5절)
3.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를 거부하신다(6절)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이 모든 것을 용납하는 분이 아니다.

C. 다윗의 헌신(5:7-8)

1.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리이다(7절), 그는 제사장이 아니다. 못 들어간다. 다만 제사장들의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께 경배하겠다는 말
2.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리이다(8절),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 한다.

D. 다윗의 정죄(5:9-10)

1. 내 원수들은 악하니이다(9절), 열힌 돌무덤, 아침하는 자들
2. 내 원수들은 유죄이니이다(10절), 그들은 저주받을 자들, 주님을 거역한 자들

E. 다윗의 찬송(5:11-12)

1.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아, 외치라(11a)
2.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아, 기뻐하라(11b)
3. 주님의 복(12)

결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 한 개인이 자신의 무기력함과 부적절함을 느끼는 때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당할 때이다. 이런 경험을 할 때 사람은 필사적인 긴박함과 모든 것을 내어맡김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연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신 속성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한다. 환경이 우리를 짓누른다 해도 '위를 바라보는 믿음은 언제나 승리한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다.

시편 6편: 징계의 고통과 유익: 죄들의 고백이 필수적이다

다윗의 시, 언제 기록했는지는 모른다.

압살롬 당시 혹은 노쇠했을 때

혹은 그의 통치 기간 어느 시점, 몸이 병들고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공략하던 때(5)

밧세바 사건

들어가는 글

거룩함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다. 하나님을 에워싼 천군 천사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군대들의 주여 (사6:3)라고 외친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개인의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신다(레 11:44-45, 19:2, 20:7, 뵤전 1:16). ‘거룩할지니라’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순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요구이다(시1:1-3).

그러나 신자가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 응징의 때를 드실 것이다(히 12:3-11). 이것은 다윗의 인생을 예리하게 통찰한 시편 6편의 메시지다.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인생의 한때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버틴 적이 있었다. 인생에서 고백하지 않은 죄가 가져온 결과는 처참하다. 다윗의 시’는 그의 죄에 대한 실제 고백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다.

시편 6편은 느기눛(아마도 현악기)에 맞추고 스미닛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아마도 현악기인 스미닛(sheminith)으로 연주해야 했다. 스미닛은 시편 12편과 역대상 15장 21절에 등장한다. 이 용어는 8개의 현으로 된 악기를 가리킬 수 있다. 참회의 시편으로 분류되는 이 시편은 저자가 용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기록한다. 이것은 참회의 시편들 중 첫 시편이다(비교, 32, 38, 51, 102, 130, 143편).

총 10절

A. 고백하지 못한 죄의 문제(6:1-7)

이 시에서는 그는 8번이나 하나님을 주(LORD) 즉 여호와라고 부른다. 언약의 하나님 먼저 책망, 그 다음 징계, 히12:1-3, 징계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다. 교육, 달리기 선수 조련과 같다.

1. 거룩한 기쁨을 상실함(1절)

- a.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 b.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2. 육체적인 힘을 상실함(2절)

- a. 내 힘을 회복시키소서(2a)
- b. 내 뼈를 고치소서(2b)

3. 정서적 평안을 상실함(3절)

- a. 내 혼이 괴롭습니다(3a)
- b. 내 혼이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3b), 죄로 인해 영혼육의 고통

4. 영적 친밀감을 상실함(4절)

- a. 내게 돌아오소서(a),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으로 생각함,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사 38:18-19)
- b. 나를 구원하소서(4b)

5. 육신의 생명을 상실할 위기감(5), 진짜 죽음
 - a.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소서(5a)
 - b. 무덤에서 나를 건지소서(5b)
6. 불면의 고통(6-7절), 저녁때의 기도, 초조와 불안 잠을 이루지 못함, 잠은 몸과 혼의 건강에 대단히 중요함, 육체적 고통에 불면이 더해짐, 눈물이 침대를 적을 정도
 - a. 밤새도록 신음하나이다(6a)
 - b. 피곤하고 지치나이다(7)
 병과 고통의 결과: 1. 더 큰 믿음 2. 하나님에 대한 쓴 마음, 왜? 믿음의 차이
- B. 죄 고백의 능력(6:8-10), 갑작스런 변화, 원수들에 대한 보고,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 인간들을 향한 자신감(8절), 예수님의 말씀(마7:23; 눅13:27)
 2. 하나님을 향한 확신(9-10절)
 - a.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신다(9절).
 - b. 주께서 내 원수들을 치실 것이(10절).

결론

건강한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영적 훈련이다. 죄들의 고백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사역에 개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의 태도에서 출발한다. 신자의 삶에서 죄로 영망이 된 구체적인 영역을 지적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그리고 나서 일단 죄를 깨닫게 되면 신자는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해야 한다(요일1:9).

죄로 인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다. 하지만 깨달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한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그분은 회개하도록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히12:5-11).

신자는 자신의 죄를 절대 축소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 고백하지 않은 죄를 오랜 시간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엡 4:26-27), 하나님께 꾸준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심을 구하면서 간단한 정산을 계속해야 한다. 신자는 죄를 버리고 순종의 길을 쫓아가야 한다(잠 28:13).

하나님께서서는 자녀들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듯이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의 용납하심과 용서를 통해 교제가 회복될 것을 알고 이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시편 7편: 징계의 고통과 유익: 죄들의 고백이 필수적이다

다윗의 시, 언제 기록했는지는 모른다.

압살롬 당시 혹은 노쇠했을 때

혹은 그의 통치 기간 어느 시점, 몸이 병들고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공략하던 때(5)

밧세바 사건

들어가는 글

거룩함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다. 하나님을 에워싼 천군 천사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군대들의 주여 (사6:3)라고 외친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개인의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신다(레 11:44-45, 19:2, 20:7, 벰전 1:16). ‘거룩할지니라’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순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요구이다(시1:1-3).

그러나 신자가 죄에 빠지면

시편 25편: 어둠 속에서 혼을 들고 하나님의 길을 보라

어려움들이 닥칠 때, 원수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조롱할 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시편 25편을 읽고 주님께 기도드린다.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없는 어려운 여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시편에는 길이라는 말이 4번(4, 8, 9, 12), 행로라는 말이 1번(10) 나온다.

시편 기자 다윗은 결정을 내릴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기도한다(4-5). 그의 주변에는 그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깔려 있고(2, 19) 그들이 함정을 파 놓고는(19) 그가 거기에 빠져서 수치를 당하기를 기대하고 있다(15, 2, 3, 20).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잘 알고 있지만(7, 11, 18)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다. “우리가 인생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확실히 인정하면 인생은 더 이상 어렵지 않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인생의 행로가 쉽지 않음을 알았다. 그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그 여정에 성공하였다.

1.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1-7).

어려움을 당할 때 불신자들은 우상을 의지한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혼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린다. 혼은 지정을 말한다(1).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운다(5). 어떤 때는 거기서만 배울 수 있다.

우리는 과거의 죄들을 생각하며 후회하곤 한다. 다윗도 마찬가지이다(7).

나의 선함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나를 기억해 주소서(7).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에게서 온다(시121:2).

2.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8-14).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한다.

그분이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면 기도 자체가 소용이 없다.

8-9, 11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걸어야 한다(12).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13-14)

3. 하나님을 신뢰할 때 승리가 온다(15-22)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위염(15), 고독(16), 마음의 상처와 근심(17), 후회(18), 잔인함 미움으로 인한 두려움(19-20), 절망(21-22)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26:12의 말씀을 기록한다.

거미줄이 가져다 준 구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였던 놀란(Frederick Nolan)은 북아프리카의 종교 박해 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적들로부터 도망치는 중이었다. 은신할 곳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언덕과 계곡까지 쫓기던 그는 지쳐서 길가의 동굴 속에 들어가 쓰러지다시피 누운 채 적들에게 곧 발각될 예상만하고 있었다. 죽음을 기다리던 그는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짜는 것을 보았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거미는 동굴 입구에 아름다운 거미줄을 쳐 놓았다. 이윽고 그곳에 도착한 추적자들은 그가 그 동굴에 숨어 있지는 않은지 의심했다. 하지만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는 그곳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추적자들은 가버렸고 그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곳을 탈출한 그는 이렇게 썼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거미줄이 성벽과 같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는 성벽이 거미줄과 같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윗을 보호하는 성벽이 되어 추격하는 적들로부터 그를 지켜 주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자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어주신

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편 25편을 읽고 기도한다.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19나 암 같은 질병, 인생의 문제들, 주변의 원수들로 인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시편 25편으로 하는 기도를 보냅니다.

어떤 때는 이런 식으로 시편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머 타운즈라는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의 책은 이런 것을 알려 줍니다.

〈Praying the Psalms: The Touch of God and Be Touched by Him〉 Elmer Towns
(*)

<https://www.amazon.com/Praying-Psalms-Scriptures-Destiny-Images/dp/0768421950>

우리 주님의 큰 평안이 고통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25편으로 하는 기도

1. 오 주여, 내가 주님을 향해 내 혼을 들고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오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선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참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까닭 없이 범법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오 주여, 주님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주님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오 주여, 주님의 친절한 긍휼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옛적부터 항상 있었사오니 그것들을 기억하소서.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들과 내 범법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에 따라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8. 주여,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시니 주님의 길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주님은 온유한 자들을 판단의 공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 하나님의 모든 행로는 주님의 언약과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입니다.

오 주여, 내 불법이 크오니 주님의 이름을 위해 그것을 용서하소서.

주여,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주님이 친히 택하실 길로 가르쳐 주소서.

내 혼이 편안히 거하고 내 씨가 땅을 상속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언약을 내게 보여 주소서.

내 눈이 항상 주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주님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 빼내실 줄 믿습니다.

내가 황폐하게 지내며 고난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주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서셔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들이 커졌사오니 오 주여, 주님께서 나를 내 고통들 속에서 이끌어 내소서.

내 고난과 내 아픔을 살피시고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하소서.

주님, 내 원수들을 깊이 살피소서. 내 주변에 그들이 많이 있으며 잔인한 미움으로 나를 미워하나이다.

오 주여, 내 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출하소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오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오니 온전함과 올바름으로 나를 보존해 주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내 모든 고난에서 나를 구속해 주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편 22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언과 영광의 성취

성경말씀: 시22:1-31

성경의 핵심: 메시아의 고난과 그분의 영광(눅24:25-27; 뱀전1:11)

이것을 담고 있는 시편이 바로 22편이다.

지금부터 5년 전쯤에 <시편 22편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22편의 전체 31절 강해

1-21절: 기도와 고난, 십자가, 22-31: 부활과 그 결과

오늘은 하나님의 예언의 관점에서 22편의 예언과 성취를 비교하려고 한다.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시편, 스티븐 로우슨, 디모테

성경이 영감을 받은(하나님의 숨이 들어 있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놀라운 증거는 예언과 예언의 성취에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결정하시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실제로 땅에서 실현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음을 알고 있다. 예수님의 삶에서 성취된 각각의 사건은 성경이 주장하는 그대로 진실임을 보여 준다. 이로써 성경이 영감을 받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확증을 제공한다.

메시아 예언: 초림과 재림, 재림이 훨씬 많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성취된 예언들보다 더 정확하게 성경의 진실성을 드러낸 것이 또 있을까?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100개가 넘는 구약의 예언들은 그분께서 성육신하기 수세기 전에 기록되었지만 신약성경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각각의 예언이 성경의 진실성을 기록으로 증언하고 있다.

시편 22편이 그토록 놀라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가 초림하기 1천 년 전에 쓰인 이 시편은 십자가 바로 아래 서 있던 사람이 실제로 기록한 것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분이 당하신 상처의 고통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까지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시인인 다윗은 십자가 처형법이 하나의 사형 방식으로 고안되기 수백 년 전에 이 시편을 통해 십자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다윗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두 눈으로 지켜본 목격자처럼 정확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성경에서 가장 상세하게 십자가를 묘사한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다섯 번째 복음서라 불리기도 하고 다윗의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걸작품 안에 십자가에 대한 다윗의 예고편이 있다.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고통을 묘사하기 위해 이 시편을 쓴 것인지 혹은 메시아를 고대하며 예언자의 입장에서 쓴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이 존재한다. 확실한 것은 이 시편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미래의 사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쓰였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실들이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

첫째, 다윗의 인생에서 이 기록에 해당하는 사건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둘째, 이 시편에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절들이 있다.

셋째, 다른 시편들과 달리 이 시편은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죄, 죄의 고백 혹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한탄하는 언급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넷째,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변호를 구하는 요청이 전혀 없다. 다윗이 자신의 일과 관련해 이 시편을 썼다면 원수들을 응징해 달라는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께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원수들을 응징해 달라는 간구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오셔서 고난당하는 중 메시아, 무서운 처형을 당하고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아 자신의 백성들이 주님의 용서하심을 알게 하려는 분에 대한 예언적 그림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오늘은 시편 22편에 나오는 19가지 예언과 구체적인 성취를 살펴보고 한다.

시편 22편의 예언과 성취

| | 주제 | 예언 (시편22) | 성취 (신약) |
|----|--|-----------------|-------------------|
| 1 | 메시아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버림받을 것이다. | 22:1 | 마27:46, 막15:34 |
| 2 | 고뇌에 찬 메시아는 쉬지 않고 기도하실 것이다. | 22:2 | 마26:38-39 |
| 3 | 메시아는 멸시받을 것이다(벌레) | 22:6 (사53:3) | 눅23:21-23 |
| 4 |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메시아를 조롱할 것이다. | 22:7 | 마27:39 |
| 5 | 조롱하는 자들은 메시아에 대해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이 그를 구출하게 하라.”라고 말할 것이다. | 22:8 | 마27:41-43 |
| 6 | 메시아는 자기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다. | 22:9 | 눅2:40 |
| 7 | 메시아는 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 22:10 | 눅1:30-33 |
| 8 | 메시아는 제자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 22:11 | 막14:50 |
| 9 | 메시아는 악한 자(영)들에게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 22:12-13 | 골2:15 |
| 10 | 메시아의 심장은 피와 물이 흐르는 슬픔으로 터질 것이다. | 22:14a | 요19:34 |
| 11 | 메시아는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다. | 22:14b | 마27:35 |
| 12 | 메시아는 목이 마를 것이다. | 22:15a | 요19:28 |
| 13 | 메시아는 십자가 처형 시 이방인(군인들)들에게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 22:16a | 눅23:36 |
| 14 | 메시아는 십자가 처형 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 22:16b | 마27:41-43 |
| 15 | 메시아의 손과 발은 찢릴 것이다. | 22:16c | 마27:38 |
| 16 | 메시아의 뼈들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 22:17a | 요19:32-33 |
| 17 | 그들이 메시아의 옷들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그들은 메시아의 옷들을 가지려고 제비뽑을 것이다. | 22:18 | 요19:23-24 |
| 18 | 메시아의 속죄로 인해 믿는 자들은 그의 형제들이 될 것이다. | 22:22 | 히2:10-12 |
| 19 |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할 것이다 | 22:27 | 계5:9 |
| 20 | 왕국은 주의 것,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분 | 22:28 | 계19:15 |
| 21 | 메시아의 세대가 생길 것이다. | 22:30 | 마1:1 |

십자가를 중심에 둔 삶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자의 삶에서 중심을 이룬다. 또한 예배의 중심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이 우리 죄를 대신한 자신의 죽으심의 경이로움을 묵상하며 정기적으로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다. 주의 만찬은 모든 그리스도 제자들의 삶과 가슴에서 십자가가 중심을 이루게 하는 시간이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걷는 성도의 일상생활에서 중심이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죽으셨듯이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삶을

내어맡겨야 한다. 주 예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심을 잃지 않으셨듯이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

나아가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있어 중심이 된다. 이것, 즉 죄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 죽음이 복음의 핵심이다. 신자들이 세상에 선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 즉 십자가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 (고전 2:2)을 전파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죽어가는 세상에서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유일한 소망이 되신, 죽음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양만을 선포해야 한다.

